

# “초도항 물량장보다 옥개시설 먼저 해야”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원 확보 주문...가로수 군락지 형성해 명품 가로수길 조성 제안

## 고성군의회 2011 행정사무감사

고성군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여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홍봉선 위원장의 감사 개시 선언에 이어 피감사자(실과장) 선서, 직원 소개, 업무보고에 이어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및 답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사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보충질의 및 답변의 순으로 진행됐다.

군의원들은 이번 감사에서 부서별로 보통 2시간가량의 시간을 할애해 강도 높은 감사활동을 벌였으며, 실과소장들의 답변이 부족할 경우 서면답변을 요구하기도 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12일 진행된 읍면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에서 홍봉선 위원장은 “마시는 물은 군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상수도 수질 검사 실시와 보호구역 순찰을 강화해 맑은 물 공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 위원장은 또 “설계에 따라 부과되는 상수도 급수공사 대형 사업시 주민들이 납부하는 선급금에 대해 공사 이후 주민들에게 정산서를 통보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고 했다.

고선기 의원은 “도로변 가로화단 꽃묘 식재 사업은 단년생보다 다년생을 식재하고, 지속적인 제초작업으로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고성의 이미지를 심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고선기 의원은 또 “토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은 300억원 이상이 투자되는 대형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2~3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기한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재원확보

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함명준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학생들 위주로 편성돼 있는 것은 문제”라며 “부모들도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함명준 의원은 “도학초교가 아토피 치료를 하는데 적절한 학교라고 해서 멀리서도 전학을 오는

을 겪고 있다”며 “추경예산에 추가 편성해 농가에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함형환 의원은 “상하수도 관리 위탁시 주민들의 입장에서 위탁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의 경우 물탱크 교체시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해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연차적인 계획을

의 각종 공사 발주시 타 지역 업체에서 발주받아 하도급을 주고 있으나, 관내 업체는 받지 못하고 있다”며 “관내 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13일 진행된 접경개발기획단, 건설방재과, 해양수산과, 농정산림과에 대한 감사에서 홍봉선 위원장은 “가로수 녹지경관사업은 녹색성장과 잘 맞는 사업이라고

로 했는데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물었으며, “어업인 지원사업에서 큰 배와 작은 배의 지원 규모가 차이가 있는데, 면밀한 검토를 해서 작은 배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고선기 의원은 “정치망 어구 건조장 사업과 관련 정치망 어구로 인해 악취와 관광이미지 실추 등 문제가 많은 만큼 하루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고선기 의원은 또 “국도변 가로수 식재사업의 경우 우리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수종을 선택해 예산낭비가 되고 있다”며 “향후 가로수 식재사업은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함형환 의원은 “침체어망 인양 사업은 어민들이 투망을 많이 하는 곳에 해야 하므로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불가사리 수매사업은 해녀와 잠수부들이 하루 일당이 만나서 안한다고 하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함형환 의원은 또 “아야진항 구 해경 통제소를 들어서 화장실을 짓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안돼 어민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해경에서는 고성군에 관리전환을 하겠다고 했으니, 군에서 녹장을 부리지 말고 올 겨울이 오기 전에는 화장실을 지을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달라”고 했다.

함의원은 초도항 어촌정주어항 사업과 관련 “초도항에 가보면 아직도 눈비를 맞으며 작업을 하는 어민들이 있다”며 “반드시 옥개시설을 먼저하고 물량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현진 활어회센터 36개동은 너무 많다”

### 신병교육대 면회 후 외출·외박 방안 주문

### 송지호 오토캠핑장 편의시설 확충 주문

학생들이 있다”며 “관내 다른 초등학교도 도학초등학교와 연계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제안했다.

함형환 의원은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면적만큼 실질적인 보상을 해야 하는데, 보상금이 한정돼 농가에서 어려움

수습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상연 의원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빈집 정비사업은 소유주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철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책임질 수 있는 가족들에게 동의를 받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했다.

황상연 의원은 “현내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마을지원사업은 소득창출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관광철이라 통행량이 많으니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해 추진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진 의원은 “가로등 관리체계를 일괄 점검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농작물 주변 가로등은 농작물에 피해가 없는 가로등으로 교체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진 의원은 또 “상하수도 분

생각된다”며 “가로수를 여러 곳에 분산해 식재하지 말고 군락지를 형성해 정말 아름다운 명품 가로수길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진 의원은 “해양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명시이월이 제일 많고, 1월달에 업무보고 한 사업이 아직도 착공되지 않고 대부분 하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 의원은 또 “수산물위판장 사업 등 어렵게 국도비를 따온 사업을 반납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며 “다른 실과는 국도비가 없어서 문제인데, 반납을 하려고만 하지 말고 목을 바꿔서라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함명준 의원은 “공현진 활어회센터 사업과 관련 36동을 짓기



함형환 의원이 화장실 신축을 위해 관리전환이 시급하다고 제기한 아야진항 구 해경 통제소 모습.